사회 단신

5·18 정신계승 및 통일염원 국민대회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종묘공원에서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적인 정치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약 2000여명이 참여하였고 민주주의민족통일연합 주최로 개최되었다.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규탄성명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지난 12일, 동아매립지 용도변경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민련의 한 의원이 지난 11일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동아건설의 인천 매립지를 용도변경하자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5·18 관련 6기 한총련 성명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올해는 5·18 광주 민중항쟁 18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IMF와 5·18 민중항쟁의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존재해 있다며, 현재 이 시각에도 미국은 한총련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18주년을 맞은 5·18 기념행사가 마치 한총련으로 인해 폭력으로 얼룩질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 한국의 민주화과정 및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한 단계씩 희망의 돌계단을 오르자

제도보다 인식이 먼저 민주화의 벽을 넘어서야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라는 용어는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 민주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80년대 5.18 광주 민중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피의 역사를 일구어 낸 이들의 함성과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떠돌고 있는가. 한국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그들에게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대가를 보상해 주고 있는가. 또한 그들이 피의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을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시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 5·18 당시 학생들이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큰 줄기를 이룬 5·18 광주 민중항쟁은 '무력을 가진 소수 군부의 권력찬탈에 맨손으로 저항한 시민의거로서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불의를 용납 않는 민족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가장 명예로운 사건 중의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또 한국현대사의 일대 분수령이 된 87년 6·10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독특한 색채를 띤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민주화 운동과는 달리 '결정적 반전'을 겪지 않았다는 데 있다. 6·10항쟁은 60년 4·19혁명이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로, 79년 부마항쟁과 80년 '민주화의 봄'이 5·17 쿠데타로 뒤집힌 것과는 다른 결과로 귀결됐다. 6월항쟁은 87년 대선의 좌절로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민주화의 대세'라는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인 지렛대가 되었다.

하지만 6·10항쟁은 지금껏 그 역사적 의의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4·19나 5·18처럼 '핏빛 낭자한 반동'이 없었다는 점과 87년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좌절이라는 실망스런 결과가 중첩된 탓이 크다.

〈역사비평〉 97년 봄호에 게재된 정진상 교수의 글에 따르면 6월 항쟁의 의의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 범민주연합전선 조직을 결성해 △반독재 반민주화운동의 최고 표현의 형태로 △현대사에서 민중이 경험한 첫 승리를 이뤘고 △사회 각 부문운동, 계급운동의 분화, 조직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따위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화에 사력을 다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우선 80년 광주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이 88년 국회 광주특위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뒤 94년에는 5·18 내란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특별법 제정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는 95년 12월 21일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은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대법원은 작년 4월 18일 전두환, 노태우씨의 반란죄와 내란죄를 확정했다. 이것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전례를 남김으로써,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의 쿠데타 가능성을 없애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5·16에서 시작해 12·12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은 이러한 결과가 매우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95년 12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당시는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됐다든지 통치행위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이 법조계와 보수언론 안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후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사면을 들고 나와 국민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무기징역과 17년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사면이 이루어진 것을 전시나 계엄 등의 상황이 아니고는 전무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후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사면 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정부는 광주보상지원회에서의 보상문제 추가결정(98년), 최저임금제(88년), 부동산 실명제(95년)와 고용보험제(95년) 등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한계다. 사회복지제도는 껍데기로만 존재하고 금융실명제는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민주노총은 합법화단체가 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전교조는 아직도 불법단체이다. 80년대 이후 시민사회와 민주진보진영의 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알찬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87년 이후 두 차례의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잇달아 좌절을 맛본 것이 한계로 나타난 것이다.

4.19혁명 이후 몇 차례의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열어 젖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문턱이 잇달아 정치의 쇠퇴와 반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한국민주주의의 '역설'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최현일 기자〉

□ 인터뷰 - '의문사 진상규명 및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위한 캠페인' 사회자 김학철씨

가슴으로 통하는 세상 기대

▲ 의문사 당한 42명의 열사들, 과연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5월의 핏빛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명료히 남아있지만 살아남은 우리들의 모습은 껍데기만을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던져진 빈 소라껍데기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역에서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사회를 맡고 있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회의 기획국장 김학철씨가 PC통신상에 띄워 놓은 글의 일부이다.

서울역에서 하루에 약 1000명정도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화할 경우 하루에 1만7000명 - 1만8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서명에 참여한다고 한다.

"앞으로 5월말까지 매일 여기서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9월 정기국회때 서명운동 결과를 상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청원할 계획이에요" 향후 이번 캠페인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여태껏 과거정권의 왜곡된 역사를 심판하고, 대형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그런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보안기구(안기부, 기무사 등)를 철저히 조사할 특별기구를 제정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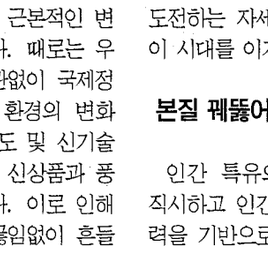
"우선은 악법과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의문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 후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묘지를 만들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들에게 국가보훈사업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마지막으로 열사들이 삶과 죽음을 통해 보여준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란 기자〉

강단시론

사상의 혁명 요청하는 시대의 회오리



김 운 호
〈사회대 경영학부 교수〉

'우주만물은 모두 다 변한다'는 사실만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한다.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늘날, 그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거대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하다.

실제로 인간은 농업혁명이니, 산업혁명 혹은 정보혁명이라는 용어로 급격한 변화를 규정지어 왔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간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편해졌다는 이유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들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등장이나 구 소련의 해체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탈 이념의 시대, 세계화 시대, 혹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라는 말도 이제는 진부한 느낌마저 든다.

경제논리, 세계무대 등장

그 동안 이념의 논리에 가려져 있던 경제논리가 세계무대의 전면에 등장한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국가의 물리적인 국경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 의미는 퇴색해 버렸다.

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정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 및 신기술의 도입, 유무형의 신상품과 풍조가 범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동시에 맹목적으로 과학과 물질문명에 추종을 강요함으로써 과학과 물질이 인간보다 우선하는 사회가 되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건전한 인간사회가 허물어져가고 있다. 삶이 풍요해질수록 더 행복해지고, 인간의 가치가 고양되어 인간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오히려 뜻밖의 사회병리현상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 때로는 변화의 객체로서 이에 적극 도전하거나 응전하며, 때로는 주체로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화의 급류에서 살며시 벗어나 나무가 아니라 숲을 조망함으로써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예측된 방향에 맞추어 자신을 끊임없이 준비시켜갈 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개인이 처한 환경 속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통제 가능한 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주만물은 생명의 본원적 충동에 의하여 끊임없이 생성, 운동하며 진화해 나아간다고 하는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론이야말로 목적론이나 기계론에 우선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도전하는 자세로 서로 합심하여 이 시대를 이겨 나가야 한다.

본질 꿰뚫어 보는 여유 필요

인간 특유의 지혜로 오늘을 직시하고 인간의 차별화된 생명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이며 주의적(主意的)으로 대응할 때 생존은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이 이룩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사상의 전환, 다시 말하면 사상의 혁명이 요청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 모두 이 변혁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혜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동서식품

30th Anniversary 생활속의 향기 30년 동서식품 30년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커피, 맥심

전세계 20여개국에 수출되어
2,75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맥심-
맥심의 품질이기에 세계에서 통합니다

요즘같은 때 100% 로얄티를 내주는 커피가 있는가 하면
한 해 2,750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맥심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커피의 본고장에 수출하는 우리커피 맥심-
올 한 해도 6,500만 달러의 원두를 수입하여 약 6,000만 달러의
커피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통하는 맥심의 맛과 향!

맥심의 품질이 곧 일류커피의 품질입니다.

다양한 맛과 향의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해온 맥심. 우리나라의 커피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향이좋아 커피다운 커피-
맥심

http://www.dongsuh.co.kr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